

# 더 던 매거진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리는 전령



# 새벽 잡지

2026년 3월

## 목차

특집 기사.....	2
피로 구원받음 .....	2
성경 공부.....	20
두 가지 큰 계명.....	20
경건함을 위한 훈련 .....	24
타인에게 베풀기 .....	28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32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	36
기독교 생활과 교리.....	40
봉사의 보상.....	40

*성경과 함께 따라가 보세요!*

## 피로 구원받음

**“그들은 그 피를 취하여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집의 두 문설주와 상단에 바를지니라.”**

**출애굽기 12:7**

3월과 4월의 봄철을 맞이하며,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유대인들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각 집단은 자신들의 달력과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이러한 종교적 행사를 기념할 정확한 시기를 정합니다. 때로는 이 행사들이 며칠 차이로, 때로는 몇 주 차이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유월절 어린 양은 그들의 달인 아빍(나중에 니산으로 불림)의 14일에 잡혔습니다. (신명기 16:1; 느헤미야 2:1). 이는 연도에 따라 우리의 3월 또는 4월에 해당합니다.

비록 기독교인과 유대인 모두 이 시기에 이러한 중요한 사건들을 기념하지만, 죄로 병든 인류의

구세주로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깨닫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지닌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는 이 또한 드뭅니다. 사도 베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눈이 가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영광과 탁월함으로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신 그분 을 알게 됨으로써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자들은 근시안적이거나 눈이 멀어, 자신들이 옛 죄에서 깨끗이 씻김 받았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3,9

## 하나님의 지시

본문 기록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때가 차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와 문지방 위에” 바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어린 양을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지시도 받았다(출애굽기 12:8). 이 본문의 맥락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과 관점을 제공한다.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이 달을 너희의 첫 달 곧 한 해의 첫 달로 삼으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알리되, 이 달 열흘에 각 가정이 제물로 쓸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한 마리씩 택할지니라. 한 가족이 먹기에 너무 적으면 이웃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 각 가족의 규모와 먹을 수 있는 양에 따라 동물을 나누어라. 선택한 동물은 흠 없는 일 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여야 한다. 이 선택된 동물을 이 첫 달 열네째 날 저녁까지 특별히 돌보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해질 무렵에 각자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한다." 출애굽기 12:1-6

##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 명백한 지시에는 상당한 상징성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애굽 땅"에 대한 언급은 사탄이 현재 지구와 그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이 세상 신[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고린도후서 4:4

"달의 시작"은 유월절을 지키는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었다. 춘분과 가장 가까운 초승달이 유대인의 첫 번째 달인 아빔의 시작을 알렸다.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첫 달의 "열흘째 날"에 선택해야 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오실 미래를 예표하며,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가리켰다. (마태복음 21:1-9; 요한복음 1:29; 스가랴 9:9). 출애굽기 12장의 기록을 더 살펴보면, 어린 양은 일 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어야 했다. 이는 흠 없는 미래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완전함을 상징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19). 유월절 어린 양은 "그 달 열넷째 날"에 잡혀 그날 밤에 먹었습니다. 유월절 잔치, 즉 "무교절"은 다음 날 시작되어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15-17

## **말아들—피 아래에서**

이 지시들에 더하여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애굽 땅을 지나가며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의 모든 말아들을 치리라.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내리리니 나는 여호와라. 그 피가 너희에게 표징이 되어 너희가 있는 집 위에 될 것이니 내가 그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리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되리니 너희 대대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킬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절기를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12-14

이 성경 구절들은 “밤”에 이집트 땅을 지나간다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순절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온 죄와 죽음의 어두운 밤을 상징합니다. (골로새서 1:13; 베드로전서 2:9). “장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 아래 있으며 그리스도 왕국의 하늘 단계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23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후에 온 레위 지파로 대체되었으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자손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섬기게 하노라” 레위 자손은 내 것이니 이는 모든 장자가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를 치던 날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곧 사람과 짐승을 내게로 구별하였노라. 그들은 내 것이니 나는 여호와니라.” 민수기 3:11-13

## 기념 또는 기억

피는 생명을 상징하며, 유월절 양이 죽임을 당할 때 그것은 희생된 생명을 나타냈다(레위기 17:11). 희생된 양의 피는 신성한 뜻에 따라, 수세기 후에 죄로 병든 인류 가족을 대신하여 바쳐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한 피를 미리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우리 주님의 희생의 피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한 탓에 내린 죽음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베드로전서 1:18,19; 요한계시록 1:5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의 특별한 시간을 기억하고 매년 기념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 것이다." (출애굽기 12:14).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였을 때 제정하신 더 위대한 기념식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자신의 희생의 피를 나타내는 잔을 나누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내 기념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1:23-26). 그분은 몇 시간 후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일을 행하라 하시고, 만찬 후에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2:19,20

## 재앙들

하나님의 시대의 시계가 울리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될 때가 되었음을 알렸다. 그들이 오랫동안 갈망해 온 구원이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파라오와 그의 감독관들은 그들을 풀어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주님께서서는 이집트 백성에게 여러 재앙을 차례로 내리셨으나, 파라오가 자비를 구하고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할 때마다 그들에게 휴식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7-10장을 참조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종 모세는 열 번째이자 마지막 재앙을 선포했다. 이집트 모든 가정의 맏아들에게 큰 재앙이 내릴 것이며,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을 것이라고 했다. 가장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도, 파라오의 궁전에서도, 온 이집트에 큰 애도가 있을

것이며, 그들은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이라고 했다. 출애굽기 11:1-8

모세의 예언대로 그 밤 자정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만아들을 치셨으니,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만아들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의 만아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다. 가축의 만아들들도 죽임을 당했다. 밤중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 온 백성이 깨어났고, 이집트 온 땅에 큰 통곡 소리가 들렸다. 죽은 자가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 바로가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나가라! 내 백성을 떠나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두 데리고 가라!" 너희가 구한 대로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소를 데리고 떠나거라. 가되 떠나면서 나를 축복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가능한 한 빨리 떠나도록 이집트 사람들이 재촉하였으니,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모두 죽을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었다. 출애굽기 12:29-33

## **여행을 준비하다**

출애굽기 7-10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처음 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지역을 포함하여 이집트 땅 전체에 공통적으로 내렸습니다( ). 그러나 그다음

여섯 재앙은 이집트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에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열 번째이자 마지막 재앙은 피로 보호받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당된 지역을 포함하여 이집트 땅 전체에 공통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나타내기 위해 희생양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상단에 뿌리고, 그 고기를 쓴 나뭇잎과 무교병과 함께 그날 밤에 먹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집 문설주와 상단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 "피 아래" 머무름으로써 하나님이 이집트의 장자들을 죽임으로 내리실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어린 양을 먹은 자들은 지팡이를 손에 쥐고 여정을 위해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이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보내도록 허락하시리라 기대하며 기다렸다. 출애굽기 12:7-13

## 율법의 특징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월절 잔치를 매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기념일 중

하나였으며, 오늘날에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 고대 관습의 의미를 존중하는 표시로 여전히 지키고 있다.

모세 율법의 수많은 특징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적절한 순서에 따라 땅의 모든 가족에게 부여될 다양한 축복들을 예표하도록 신성하게 설계되었다. 유월절 기념의 경우, 어린 양의 죽음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였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행위는 죄와 죽음의 밤에, 지나간 자(유월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대속 희생의 공로가 전가됨을 상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맡아들" 계층이 어린 양의 흘린 피로부터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것이다. (요한일서 1:7; 에베소서 1:3-7).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보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 아담의 죄가 취소될 수 있었으니, 이는 아담이 지은 벌, 즉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신성한 죽음의 선고로 받게 된 그 벌을 치름으로써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죽음의 저주와 그에 따르는 슬픔과 고통의 고통이 제거되기 전에, 정의의 만족이 제공되어야 했습니다. 성경이 선언하듯이: "한 사람[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정죄가 임하였으니, 이와

같이 한 사람[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의롭다 하심이 선물로 주어졌느니라." 로마서  
5:18

## 첫 열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요한 계시록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이백사십사천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내가 들은 그 소리는 하프를 치는 자들이 하프를 치는 소리와 같더라. 그들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사로잡혀 온 백사십사 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은 여인들에게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자기 몸을 보존하였음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이들은 사람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린 첫 열매라." 요한계시록 14:1-4

이 영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과 몸이신 분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로 가리킵니다. 이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 안에 ‘후일 맺을

열매'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로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구원하실 목적이셨지, 만아들만 구원하실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한 민족으로서 그들은 온 인류 가족을 대표했으며, 장차 약속의 땅—회복된 완전한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생을 누릴 기회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온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통해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람과 조수를 주관하시는 신성한 능력으로 특별히 마련하신 홍해의 길을 따라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출애굽기 14:21-30). 단 한 명의 이스라엘인도 뒤에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온 세상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미래 통치 아래 세워질 의로운 법칙과 화합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진실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을 되새길 수 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랜섬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때가 되면 증거되리라"고 말하였다. 디모데전서 2:6

## 두 가지 성취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의 맏아들들이 어린 양의 피 아래 머물러야만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피 아래 있었고 죽음을 당할 운명이었던 유일한 자들이었습니다. 유월절의 그림이 보여주듯, 그날 밤 그들은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어린 양의 피 뿌림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현재의 기독교 시대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도 피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받아들여 그 보호 아래 있습니다(요한일서 1:7). 그들은 세상보다 먼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해의 눈이 열려 자신의 죄와 속박 상태, 그리고 구원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에베소서 1:18).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응답하여 온전한 헌신으로 자기 삶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로마서 12:1).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흘리신 피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그들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3

사도 바울은 현 시대의 헌신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세례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은 자는 다 그의 죽음에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에 함께 묻힌 것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심겨졌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날 것이다.” 로마서 6:3-5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 자들이 계속해서 뿌려진 보혈 아래 거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 이 은혜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자비를 무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지 않거나, 예수님의 피의 구원하시는 능력에 참여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범하면,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26

## 온 세상의 구원

"장자의 교회" 성도들은 세상보다 먼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24). 교회가 완성될 때,

우리 구주의 피의 공로, 즉 그 가치가 온 인류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다른 양들이 있으니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들이다. 그들도 반드시 데려와야 하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들을 것이요, 한 우리에게 한 목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0:14-16

이집트 땅에서 일어난 두 번째 큰 혜택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게 하여 온 민족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온 인류가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궁극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약속된 복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고 새 언약의 조건 아래 세상에 주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 31:31-34). 그때에 의를 따르고 위대한 모세, 곧 우리 주 예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담의 죄로 인해 상실된 생명권이 부여될 것이다. 신명기 18:15-19; 사도행전 3:20-25

죄와 죽음의 긴 밤은 지나가고, 구원의 영광스러운 아침이 올 것이다. (시편 30:5). 머리가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는 온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이끌어 내어 구원하실 것이다. 그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쁘게 경외하며, 존중하고 순종할 것이다. 사도행전 15:16,17; 로마서 11:26-36

##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형제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룩을 깨끗이 치워 새 반죽이 되게 하라. 너희는 진실로 누룩 없는 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잡히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와 거짓의 누룩이 아닌 진실과 진리의 누룩 없는 떡으로 이 절기를 지키자." 고린도전서 5:7,8

이 성경 구절에서 사도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만아들의 교회"(히브리서 12:23)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악의와 악행의 누룩으로 상징되는 모든 죄와 불의에서 스스로를 깨끗이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으로 나타난 의와 진리를 추구해야 했습니다.

상징적인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 것으로 삼습니다. 또한 우리는 능력 있는 한 그리스도를 '입음'으로써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과 성품으로 변화됩니다(로마서 12:2; 13:14; 갈라디아서 3:27). 우리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던 것처럼 그분을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식욕을 돋우고 자극했던 쓴 나물은 우리의 쓰라린 경험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이 나물들은 우리의 애정을 세상의 것들로부터 떼어내도록 돕기 위해 주어졌으며, 진리의 어린 양과 무교병을 먹으려는 우리의 식욕을 점점 더 증가시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지속되는 성읍”이 없습니다. 대신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우리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늘의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위해 허리를 동여매고 갑니다(히브리서 13:14; 베드로전서 2:11).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만아들의 교회에 예비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축복은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 구원의 피의 공로를 신실히 받아들인 자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1:3-7

## 절기를 지키자

곧 많은 이들이 다시 모여 위대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할 것입니다. 올해도 이 절기를 지키며,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과 때가 되면 세상에 증거될 그 보혈을 기뻐하십시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눈에 기쁘게 여겨지는 일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원토록 영광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13:20,21

## 성경 공부

3월 1일 교훈

# 두 가지 큰 계명

**핵심 구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잘 대답하신 것을 알고 예수께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오니이까?”

**마가복음 12:28**

**선별된 성경 구절:**

**마가복음 12:28-34**

오늘의 본문에 앞서, 예수님은 성전 뜰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맞닥뜨리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가르치느냐고 물었습니다(마가복음 11:27,28). 이에 예수님은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그 비유에서 악한 관리자들은 땅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 위에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자들임을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서 빼앗겨 열매 맺는 백성에게로 옮겨질 것이다." 마태복음 21:43

이에 분노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여러 질문으로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고 묻자, 스승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13-17). 사두개인들은 이어서 일곱 형제( )가 같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들의 나라에서는 그 여인의 남편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다." (마가복음 12:24)

예수님의 답변에 감명받은 한 "서기관"이 아마도 진심으로 본문의 핵심 구절에 기록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29,30). 신명기 6:4,5을 직접 인용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도록 포괄적인가!

예수님은 서기관이 묻는 질문을 넘어,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31). 여기서도 예수님은 구약성경(레위기 19:18)을 인용하셨습니다. 얼마나 적은 말로 많은 것을 말씀하셨는지! 성경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며, 이는 그의 피조물들의 복지를 위한 섭리로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들에게 그 사랑에 보답하라고 권면하시며, 창조주와 이웃을 대하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기준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은 공자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즉 남에게 해주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대조적인가! 하나는 단순히 부정적인 진술에 불과한 반면( ),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진술이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실제로 하나님의 법에는 신성한 것임을 증명하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두 위대한 법을 지키고자 할 수 있고 기꺼이 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각자는 온 마음과 영혼으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할 것입니다. 모두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을 섬기려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낙원일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때 세상이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 경건함을 위한 훈련

**핵심 구절:** “경건함을 위하여 자신을 단련하라.  
육체의 단련은 이득이 조금 있을 뿐이나, 경건함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 이는 현세와 내세에 대한  
약속을 지니기 때문이라.”

**디모데전서 4:7,8**

**선별된 성경 구절:**

**디모데전서 4:7-16**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 편지에서 그를 “믿음 안에서 내 친아들”이라 불렀다(디모데전서 1:1,2). 바울이 처음 디모데를 사역으로 부를 때 그가 자신감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사도는 이후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보여준 믿음을 상기시키며, 그가 “두려움의 영”에 굴복하지 않도록 권면했다(디모데후서 1:5-7). 또 다른 경우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가 방문할 때 그를 위협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그가 불안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고린도전서 16:10).

본문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네가 젊다고 아무도 너를 멸시하지 못하게 하라"(디모데전서 4:12)고 권면합니다. 비록 개인적인 성격의 권면이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격려는 교회 각 성도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 구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육체적 훈련과 경건함의 대조를 생각하라고 권면한다. 한 번역본은 이렇게 기록한다: "육체 훈련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나, 경건함은 모든 것에 유익하여 현재의 삶과 장차 올 삶에 대한 약속을 지닌다." 수많은 연구가 운동의 심리적 이점을 입증해 왔는데, 우울증과 불안 증상 감소, 스트레스 수준 저하, 자존감과 자신감 향상 등이 포함된다. 바울은 육체적 운동을 시간 낭비로 치부하지 않고 가치 있는 것으로 칭찬합니다. 사도는 다른 곳에서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것임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분의 사역에 적합하도록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19,20

신체 운동의 실용적 가치를 인정한 바울은 곧바로 "경건"을 실천하는 것이 더 뛰어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디모데가 목회적 의무를 잊거나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길을 견도록 격려하기 위해 그 의무를 상기시킵니다. 디모데에게 교회에 모든 속된 것과 허황된 교리를 거부하고 배척하며 참된 경건을 실천하도록 권면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신성한 메시지의 받아들여짐을 보도록 격려해야 한다.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고 모욕을 당하는 특권을 믿는 자들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디모데전서 4:7-10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디모데전서 4:12)고 말합니다. 그의 말과 행실,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이 본이 되어야 하며, 이는 단지 공개적인 설교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한 본은 반드시 내면, 곧 그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의 그리스도인 인격의 내적 은혜가 말과 행실과 행동을 통해 외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며 이렇게 결론짓는다. "내가 갈 때까지 네가 읽는 일과 ... 교훈에 전념하라. 네 안에 있는 은사를 소홀히 하지

말고 ... 이 일들을 깊이 생각하며 온전히 그 일에 힘쓰라." (디모데전서 4:13-15)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신실함은 "의와 참된 거룩함"의 원칙 위에 세워집니다(에베소서 4:24).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지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여지라"(베드로전서 1:15).

## 타인에게 베풀기

**핵심 구절:**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그럽게 나누어 주라.”

**신명기 15:11**

**선별된 성경 구절:**

**신명기 15:4-11**

신명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의 요약으로 묘사되어 왔다. 거의 전편에 걸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신 계명과 지침을 반복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따라야 할 지침으로서 율법을 주셨다. 모세의 다음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이 마치 삶의 지침서와 같음을 보여준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항상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6:24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경으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의 명령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에 가난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본문은 예배에 관한 다양한 지침에 초점을 맞춘 신명기의 한 부분에 위치합니다. 앞 장에서는 동물을 정결한 것과 부정함 것으로 구분하고 십일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유월절( )과 이스라엘 예배 달력 속 다른 절기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신명기 15장은 이사야 58:6-7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배에서 요구하시는 바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금식이 아니겠느냐? 악의 멍에를 끊고, 무거운 짐을 풀어 주며, 억압받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린 자에게 네 떡을 나누어 주고, 쫓겨난 가난한 자를 네 집에 데려오며, 벌거벗은 자를 보면 그에게 옷을 입히고, 네 친족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본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속에서 살아가야 할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켜 빚을 탕감해야 했습니다(신명기 15:1-3). 그들은 마음을 열고 손을 펴서 궁핍한 자들에게 그들이 부족한 것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15:7-10). 어떠한 조건도 달아서는 안 되었다. 필요함이 있으면 채워 주어야 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신실히 지키기만 한다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었다.

구약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충성의 대가로 지상의 번영을 분명히 약속하셨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일어난 시대적 전환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 왔다. 많은 이들이 번영의 약속을 그리스도인에게 잘못 적용해 왔으며, 이 오류는 정신적 혼란을 초래했다.

현 시대의 세속적 번영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가르친 대로 사랑의 법칙을 실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재물이 있으면서 형제자매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요한일서 3:16-18

3월 22일 교훈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핵심 구절:**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며,  
종과 자유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며,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28**

**선별된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3:24-29**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어 하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실 때, 그들에게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마태복음 10:5-7). 이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음을 반영한 것이었으나, 곧 그 상황이 변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선별된 성경 구절에서 바울은 율법 언약 체제를 통해 인도함을 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할 점을 설명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3:24,25

오늘의 핵심 구절은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랜섬으로 죽으셨기에, 모세 율법 아래 존재하던 모든  
구별이 이제 사라졌다는 바울의  
선언입니다(디모데전서 2:5,6). 그 결과, "들을 귀가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마가복음 4:9).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지위는 이제 새 피조물로서의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17).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웠으며, 개인의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서였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너희는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라 상속자라."  
갈라디아서 3:29

유대인들은 과거에 그들의 민족에게 주어진 은혜가  
기독교 형제애 안에서 특혜적인 지위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도 유대인 민족이 율법 언약 아래에서  
이전의 은혜에서 끊어졌다고 해서, 개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었다. 양쪽 모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민족적

차이를 무시하시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신실함에 따라 상을 주실 것임을 알아야 했다. 고린도전서 12:12,13 종 제도는 이스라엘에서 규제된 제도였으며 바울 시대에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된 종이 주인의 뜻을 무시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 종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인 양 축복하실 수 있다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7:21,22). 어떤 면에서는 종의 지위가 주인의 지위보다 하늘 나라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겸손한 성품을 얻기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종은 주님께서 하늘의 소망에 관해 그의 세속적 지위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유대 여성들은 다른 고대 문화권 여성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스라엘의 가부장적 법은 그들을 주로 가정 영역에 국한시켜 양육과 가정 생활을 책임지게 했습니다. 제사장직은 그들에게 배제되었으며, 몇몇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성전 출입도 제한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러한 가부장적 법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3:26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특권을 누리며 기뻐합니다. 온 세상에 증인이 되어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에 충실합니다. 마태복음 24:14

3월 29일 교훈

##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핵심 구절:**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말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교훈이 시온에서 나오며 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이사야 2:3**

**선별된 성경 구절:**

**이사야 2:2-4**

온 인류의 복은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다주는 복된 결과를 경험할 기회를 결코 박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이를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맹세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이 일을 행하였고 네 아들 곧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크게 복주리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16-18

본문은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국을 말하며, 그 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시온 산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통치 중심지로 인정받았습니다. 신약은 이를 상징적인 영적 시온과 대비시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된 자들로 묘사되며, 이는 이사야의 시온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22-24). 사도 베드로 또한 시온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살아 있는 돌로 묘사하며, 그리스도를 모퉁잇돌로 삼아 시온에 세워진 영적 성전으로 건축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구약의 시온을 신약의 교회와 연결합니다. 베드로전서 2:4-6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4; 누가복음 4:43). 그분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초대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가복음 9:23).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지 불과 몇

년 만에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민족에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 이는 특히 시온 계급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드러났으며, 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 말은 믿을 만하니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노릇할 것임이라." 디모데후서 2:11,12

이 복음은 이제 이천 년 동안 전파되어 왔으나 시온 계급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기준이 높고 대다수에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선언하셨습니다(마태복음 22:14). 따라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본기도에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6:10

요한의 환상에서 나온 이 말씀으로 본문을 마칩니다: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과 바다와 나무 위에 바람을 불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더라. 또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오는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외쳤다. ...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전에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치지 말라. 나는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었는데, 144,000이었다.”  
요한계시록 7:1-4

## 봉사의 보상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함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랜섬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45*

예수님의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주님은 3년 넘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셨다. 그들은 그분을 메시아, 곧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상속자, 메시아 왕국을 세워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온 인류의 모든 가족에게 복을 주실 분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창세기 22:18; 갈라디아서 3:8

주님은 그들에게 특히 충실하면 자신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마태복음 19:28).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왕국이 영적인 것이며, 그들이 그 왕국의 동참자가 되기 전에 "첫 부활"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고린도전서 15:51,52; 요한계시록 20:6). 제자들이 왕국에 참여하고 그 왕국이 사람들 가운데 세워지기까지 한 시대가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도 아직 분명히 밝히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암시하셨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장차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12,13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완전히 압도되고 낙담하지 않도록, 그들이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할 소식의 일부를 조금씩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이며,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용감했던 베드로는 이번에는 심한 꾸지람을 받았다. 그는 스승을 바로잡으려 했다. "주님,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며 곧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한다고 믿었습니다. 주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게 걸림돌이 되니, 네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6:21-23

이 같은 가르침에서 예수님은 또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마태복음

16:21).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했기에, 이 추가된 말씀 역시 그들에게는 스승의 "어두운 말씀"처럼 신비롭게 여겨졌을 것이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다른 때 하신 말씀도 떠올렸을 것이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53). 이 또한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어려운 말씀이었다.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말씀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따를 만큼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그분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는가? 오순절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은 상황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완전히 깨달았다(사도행전 2:1-4). 거기서 성령께서 신비로운( ) 신적 섭리를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몸인 교회의 고난이 먼저 이루어져야 왕국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에 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베드로전서 1:11

## 오른쪽과 왼쪽에

또 다른 복음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들과 함께 와서 간청했다고 전한다: "주님, 제 두 아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20:20,21). 그들은 왕국의 영광을 나누어 줄 때가 매우 가까웠다고 믿었다. 이 두 사랑하는 제자들이 단순히 야망 때문에 스승께 가장 가까운 자리를 구했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기에 다른 제자들보다 그분께 가까이 있는 것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열두 제자 대다수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주님은 여러 특별한 경우에 베드로와 함께 바로 그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성산에 있었고, 야이로의 딸이 깨어날 때도 있었으며, 겐세마네 동산에도 있었습니다(마태복음 17:1-5; 누가복음 8:41,42,49-56; 마가복음 14:32-34). 그들은 주님께서 크게 사랑하신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그분은 자신의 왕국에 중요한 자리가 있을 것이나, 그 자리는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자리는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20:23)

아버지께서는 절대적인 정의와 의의 대표자로 서 계십니다. 천년왕국의 천상 단계에서 차지할 위치는 어떤 형태로든 단순한 편애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과 자격에 근거하여 주어질 것이며,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을 것입니다(에베소서 2:8). 주 예수님 자신은 합당하시기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실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만하심이라." (요한계시록 5:12). 참으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께 영광과 큰 존귀를 주시고 그분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분의 왕국 영광의 절정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완성되고 모든 "부름 받고 택함 받고 신실한 자들"이 약속된 "생명 면류관"을 받을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14; 2:10

## 어떤 왕국을 의미하는가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예수와 사도들이 자주 언급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처음에는 물론 예수 시대 이후

거의 200년 동안은 혼란이 없었다. 초기 교회는 메시아가 두 번째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매우 잘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영광 가운데로 데려가시고, 세상을 다스리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한 신성한 권능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며, 이 메시아 왕국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천년이 필요할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2,3; 마태복음 25:31; 요한계시록 20:6

그러나 점차 지상의 교회가 메시아의 왕국으로 조직되어 예수 재림 전에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는 이론이 생겨났다. 이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은 교회 역사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더 이상 복음 전파는 왕국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준비된, 듣는 귀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작은 무리"를 부르며 온전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았다. (누가복음 12:32). 오히려 그 방향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이후의 노력은 세속 권력을 장악하는 데 집중되었다. 음모가 시작되었고, 거짓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왕들과 국가들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박해가 동원되었고, 교회의 세계적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가능한 한 세속 통치자들을 회유하고 위협했다.

한동안 이러한 노력은 번성했으나, 19세기 초부터 지상에 대한 교회의 지배라는 사상은 대부분 사라졌다. 그로 인한 혼란 속에서 많은 이들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거의 없다. 혼란 속에서 어떤 이들은 영적 왕국이 단지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하는 것이라고 논한다. 또 다른 이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금 세계의 거대 정부들에 의해 대표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 왕국의 특정 부분이 왜 같은 왕국의 다른 부분과 전쟁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군대를 구축했는지 생각할 때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이 모든 혼란의 결과로, 많은 자칭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일관되거나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야고보, 요한 및 다른 사도들이 통치하는 왕국이 없이는 "열두 보좌"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마태복음 19:28). 그들은 또한 주님의 기도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10).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알고 이해하려 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매일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39; 사도행전 17:11).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큰 축복을 받고, 아직 땅에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33

## “너희가 능하겠느냐”

두 사랑하는 제자와 그들의 어머니가 왕국에서 스승 곁에 특별한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어떤 위치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분과 함께하며 가르침을 배우고 동의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왕국의 영적 단계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었다.

주님은 이 조건을 선언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마태복음 20:22). 그분은 무슨 뜻이었을까? 예수님이 언급하신 "잔"과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분은 이 말씀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제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잔"이 다른 곳에서 언급하신 바로 그 잔이라고 답한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요한복음 18:11). 신성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의 복을 위해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맡길 자는 누구나 먼저 그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신실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정하셨다. 예수님 자신의 경우 그 잔은 섬김과 모욕, 수치, 희생, 고통의 모든 경험을 의미했으며, 그는 지상 사역 3년 반 동안 이를 충실히 견뎌내셨고, 갈보리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실 때 완전히 성취하셨다(요한복음 19:30).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그분과 유사한 경험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고통과 희생과 섬김에 대한 충성과 신실함을 먼저 보여줄 때에만, 주님의 왕국 영광과 존귀와 권능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데 성공할 것입니다. 로마서 8:17; 디모데후서 2:11,12

예수님께서 "내가 받는 세례"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희생적인 죽음으로의 세례를 가리키셨습니다. 잠시 후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누가복음 12:50) 하셨습니다. 사역 초기에 주님께서 받으신 물 세례는 그분의 진정한 세례를 상징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물 속으로 내려가시고, 물 속에 묻히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희생적인 죽음 속으로 내려가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죽음 속으로의 진정한 세례는 요단강에서 갈보리까지 3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이는 죽음으로의 세례가 완성되었음을 의미하셨다. 그는 그 죽음의 세례 상태에서 사흘 만에 아버지의 강력한 능력으로 일으켜져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이 위치를 영원히 차지하실 것이다. 에베소서 1:19-22; 골로새서 3:1; 히브리서 1:1-3

이것이 예수님의 세례였다. 이는 모든 세상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함을 의미했다. 이제 그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정도까지 그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따를 것인지 물으셨다. 곧 그의 섬김과 희생과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고, 죽음으로의 세례를 함께 받을 것인지 묻는 것이었다(로마서 6:3-5). 오직 그분을 신실하게 따를 때에만 그들은 하늘나라에 참여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분의 잔을 마실 것인지, 죽음으로의 세례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직 겸손하고 자기희생적인 자들만이 그러한 경험에 들어갈 수 있거나 기꺼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왕국 관점에 적용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이 지상의 다양한 왕국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지상의 지도자들이 통치하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이르는 희생에 참여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교회라 불리는 지상의 기관들에 가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르는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 부정이 필요한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 그의 죽음에 참여하는가? 그들이 모두 그의 고난을 나누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직 하늘 나라에 대한 올바른 관점만이 이 다양한 진술들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 우리는 그것이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값진 진주"임을 깨달아야 한다. 마태복음 13:46

##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즉, 그들은

스승의 잔을 마시고 그분의 세례에 참여할 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마태복음 20:22).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기꺼이 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신실한 제자들처럼 "이기는 자보다 더 큰 이기는 자"가 되어 구속주와 함께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약속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누릴 모든 이들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로마서 8:37; 2:7; 고린도전서 12:27

이 기록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로 세례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20:23).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의 의지뿐이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께서 지니신 능력과 힘을 갖지 못한다.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다. 그는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며, 더러움이 없으시며, 죄인들과는 분리되셨다"(히브리서 7:26).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옳은 일을 하려는 의지를 바칠 뿐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고난과 경험의 학교로 인도하셔야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성과 신실함을 죽음까지 증명할 수 있는 필요한 교훈을 주실 것이다. 타락한 인류의 일원으로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세주 안에서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을 마련해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히브리서 2:17).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나라에 이르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가장 존귀한 종

다른 사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그런 청을 한 것에 분개하였다(마태복음 20:24).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께 메시아 왕국에서 위대함을 이루는 기준이 되어야 할 지침을 제시할 기회를 주었다. 누구든지 겸손과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더 높은 자리에 합당한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13).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는 통상적인 세상 방식과는 다르다. 세상에서는 통치권이 타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2:25,26

왕국의 통치 원칙은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영광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은 무엇보다도 뛰어난 종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위치는 신성한 임명으로 왕국에서 가장 높으며, 다른 이들은 그분의 사랑과 섬김, 순종, 충성의 정신을 가진 만큼 그분

곁에 나란히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섬기려는 사람은 나를 따라야 한다. 내 종들은 내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2:26